

#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 **시민 공모형 원고 모집 안내**

지금까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 등을 이용하면서 만족스러우셨는지요?  
만족스러우셨다면 그 모습이 미래에도 변치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을 서술해 주시고, 만족스러운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불만족스러운 경험의 원인이 된 지금의 의료시스템이 이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신다면,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보다 나은 미래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함께 그려주세요. (특정 의료기관의 이름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가장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된 의료시스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유롭게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 바라는 바를 원고에 담아 주세요.

MS word 혹은 아래한글로 작성해 주세요. 글자수나 줄간격 글자체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하시고 편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이며 2-7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원고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상금(사전 공지 참조)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보고서나 논문, 단행본 등 의 형태로 출판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토론회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본문에는 이름을 포함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수상의 영예를 얻으신 경우 본인 이름 공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원고의 출판이나 활용 과정에서도 글쓴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단행본 제작 여부는 미정이며, 향후 출판 여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그 후속 단위(가칭 의료개혁 TF)에서 상의 후 결정할 것입니다. 단행본 출판이 되는 경우 일정 부수(1 만부 이상) 이상 판매가 된다면 판매 부수에 따라 단행본 포함 원고의 저자들에게 인세 일부나 소정의 원고료 등을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 <원고 제출 방법>

-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numed.org/> (상단의 '우리가 원하는 의료' 제목 클릭, 게시판 업로드)

- 글쓰기 제목은 [시민 공모]로, 본문은 "시민 공모 원고를 제출합니다."라고 간단히 써 주시면 됩니다.
- 원고는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이름과 연락처(전화번호)를 첨부 원고의 하단에 기재해 주세요. 그 아래에 공모 자격 확인 위해 '의사, 혹은 의사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

아래는 원고 작성 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참고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병원을 주로 이용하셨나요? 동네의원을 주로 이용하셨나요?
- 진료 중 의료진과의 소통은 충분하신가요? 설명은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나요?
-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쉽게 물어볼 수 있었나요?
- 한 곳, 또는 몇 곳의 의료기관을 정해 꾸준히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러한 의료기관이나 주치의, 또는 전담 의료팀을 지정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 내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나의 주 의료진을 배정받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치의나 주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해당 의료진과 기관을 통해 받고 싶은 의료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주치의나 주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면, 다른 의료기관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요? 현재와 같이 어느 의료기관이나 자유롭게 가길 원하시나요?
- 나를 진료하는 주 의료진은 주치의 1 인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다수의 의사가 필요할까요? 의사 외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나올까요?

- 나의 주 의료기관 또는 전담 의료기관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동네의원,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 그 규모는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길 원하시나요?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멀더라도 대학병원과 같은 3 차의료기관에 다니고 싶으신지요? 내가 주로 다니는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의료기관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학병원 진료를 위한 의뢰서를 받는 데에도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만족하시나요? 변화가 필요할까요?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 전화나 영상,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는 더 편리할까요? 이러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길 원하시나요? 사용하지 않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부담금을 지불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할까요? 현재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많은 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많은 금액이, 적은 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절할까요?
- 현재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위와 다른 방식으로는 예를 들어 환자의 건강을 잘 지켜주느냐 여부, 환자의 만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도 있고, 또는 의료서비스 양이나 진료 결과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주치의 또는 전담 의료진, 전담 의료기관이 있고 그곳에 등록을 한다면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지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할까요?
- 주치의나 전담 의료기관이 정해졌다면, 그 외의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하는 경우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 미래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정도는 변화해야 할까요?
- 건강보험료를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